



12면

익산 미륵사지서 백제 토목기술 확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음 5월 7일) 제352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슬로건으로 시·군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순창군을 찾아 군청에서 최영일 군수와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 전북자치도, 대응 강화

###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

119·129·스마트폰 앱

통해 묻어는 병의원 등 확인

전북자치도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등 도민들을 향한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의료계 집단휴진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의협과 대표자 회의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 이로 인한 의료 공백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일부 병·의원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 의료계 소통 강화 방안을 강구했으며, 행정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한, 14개 시·군 담당 역할과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지역의사회, 주요병원 등 지역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집단휴진 억제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도와 시·군 개원의 전담관(80

반 160명)을 편성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1,287개소(의원 1,226개소·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집단휴진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발표에 따라 의료법 50조1항에 따라 도지사 주재로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을 지난 10일 조치한 상황이다. 진료명령은 시·군에서 판단해 진료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일부 병원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의료계 휴진에 따른 문 여는 병·의원과의 현황은 소방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나섬에 따라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도민들을 향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차원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협조를 요청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이제 의료계도 갈등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농촌유학 1번지 도약 적극 지원"

### 김지사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시군 방문-순창

#### 도민과의 대화서 농촌유학 활성화 등 지역 현안 청취

#### 순창군 가족센터·순창전통시장 등 방문 소통 가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순창군을 방문,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주제로 군민들과 소통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생생한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순창군을 찾은 김관영 지사는 먼저 군의회, 지역 언론인과 자리를 함께하며 지역의 의견을 듣고 민생 방문을 시작했다.

이어 향토화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지사는 500여 순창군민과 함께 도정을 공유하며 군정과 도정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화의 자리에서 특강을 실시한 김지사는 '함께 도전하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도전경성' 정신을 설명한 후 군민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대화의 시간에 군민들은 순창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섬진강·용굴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리비 특례 발급 △농촌유학 활성화 △지역의 특색있는 인구소멸 대책 확대 지원 등을 건의하며, 상생발전을 향한 도지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지사는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지원하는 순창군 가족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 참여자와 시설 직원들을 격려하고, 프랑스 자수, 이중언어학습, 외국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함께 했다.

또한, 김지사는 오일장의 정통을 이어오고 있는 순창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한 뒤, 순창군 사회단체장과 전통순대촌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영일 군수는 김관영 지사와 전 일정을 함께하며 "순창군의 특색을 살린 미래 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동부권 개발사업의 관광 분야와 식품 분야, 전 원마를 500호 조성, 농촌 유학, 청년종자장장,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순창군은 섬진강과 용굴산 같은 천혜의 자연 자원과 발효식품 등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창=이양형 기자

##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힘 쏟는다'

### 전북자치도-정읍시, 상생·발전 간담회

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날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첨단산업단지 입주기관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산업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급변하는 바이오 시장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힘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시·익산시·전주시를 트라이앵글 벨트로 묶어 바이오 특화단지에 공모했으며, 정읍시는 지역 내 바이오 강점으로 내세우는 국내 비임상 국책 연구기관들과 미생물·동물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지난 4월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부설 바이오 규제 혁신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산업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바이오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의 R&D 연구 기술력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국내 바이오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태환 기자

## "의료대란 해결 못하면 건보료 납부 거부 시민운동"

###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경고

전북지역 소비자단체가 의료대란 해결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11일 호소문을 내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치료는 필수인 만큼 이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어느덧 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전 국민 의무 가입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고 박곡박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들은 '아빠면 안 된다'는 공포심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이어 "민약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집단 휴진이 이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사태를 참고 기다려온 것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정부와 의료계에 보낸 신뢰의 표시"라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저버리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인 '강대강'으로 간다면 의료소비자인 국민도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집단 휴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면 우리도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